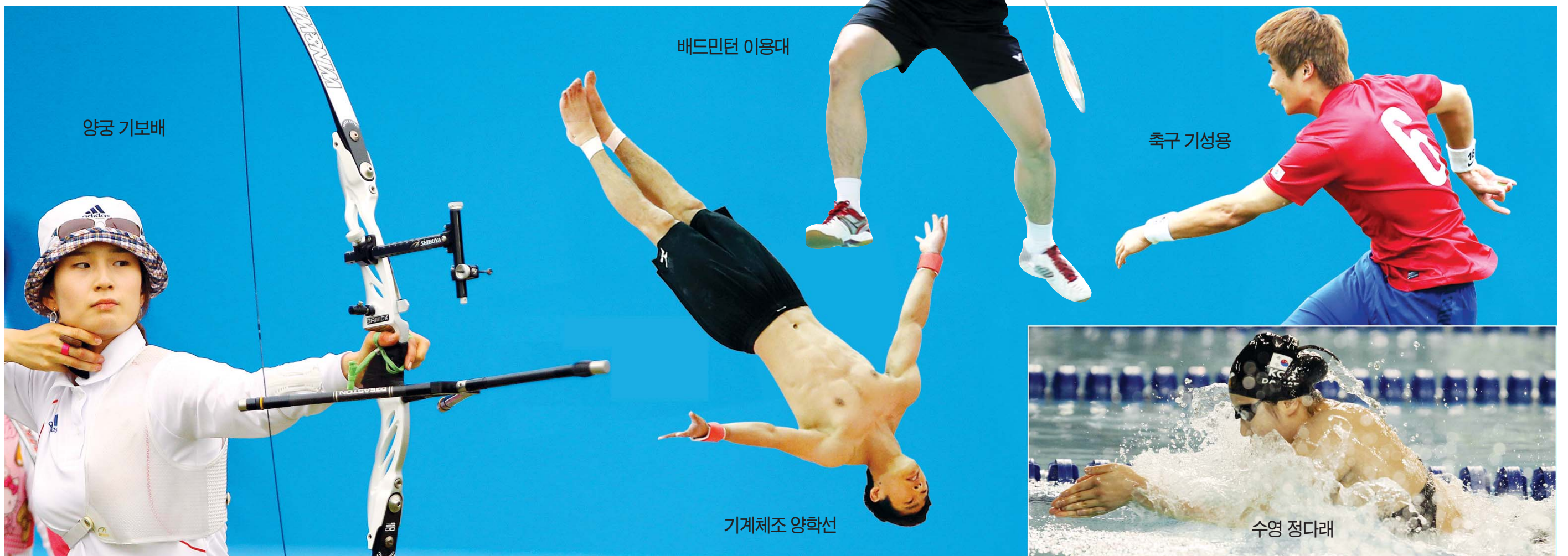




■ 광주·전남 올림픽 태극전사 36명의 힘찬 도전



이용대·기보배·양학선·황희태·정재현·차동민·기성용

# 金 후보 수두룩 ... 올림픽 보는 재미 2배

박채순·고광구 등 지도자도 7명 참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태극전사들이 가슴 벅찬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7일 영국 런던에서 지구촌의 스포츠 대축제인 201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런던 올림픽,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해 태극마크의 꿈을 이룬 선수들이 4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결전의 무대에 선다. 광주체고를 졸업한 남자 기계체조 대표 양학선(20·한체대), 화순을 대표하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24·삼성전기), 광주가 제2의 고향인 광주여대 출신의 기보배(24·광주시청)는 한국이 목표표하는 '10·10'의 기대주이다. 10개의 금메달로 10위를 겨냥하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위해 기보배가 가장 먼저 사대에 선다. 오는 29일이 기보배의 D-데이. 2010 광주 아시아인대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던 기보배는 올림픽 단체전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 이날 기보배는 최현주·이성진과 함께 한국의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위해

시위를 당긴다. 오는 8월2일에는 개인전 결승이 치러진다. 28일 남자 기계 체조 단체전을 통해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는 양학선은 8월6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난도 7.4의 기술로 도마에서 금빛 착지를 준비하고 있다. 양학선과 단체전에서 호흡을 맞추는 김승일(27)과 김희훈(21)도 이지역 출신이다. 김승일은 영광중·영광고를 졸업해 현재 수원시청에서 뛰고 있고, 김희훈은 광주체고에 이어 한국체대에서 양학선과 한솥밥을 먹고 있다. 화순의 '원크보이' 이용대(24·삼성전기)는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에 이어 남자복식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다. 정재성과 짝을 이룬 이용대가 계획대로 승승장구한다면 8월5일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을 향한 최후의 도전이 이뤄진다. 한국이 첫 금을 노리고 있는 사격에서는 광주여 아시아인대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과

함께 은·동메달까지 획득했던 광주체고 출신의 김중현(27·창원시청)이 버티고 있다. 광주여에서 금빛 메치기를 선보였던 목포고 출신의 유도 황희태(34·수원시청)는 남자 100kg에서 베테랑의 위용을 과시할 예정이다. 해남이 본적인 국제 무대의 단골 손님 레슬링 정지현(29·삼성생명)은 자유형 55kg에 출전하고, 장흥 출신의 차동민(26·한국가스공사)이 베이징에 이어 태권도 80kg 이상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세계적인 수준과는 격차가 있지만 스포츠스타들의 아름다운 도전도 이뤄진다. 여수의 자랑 '인어공주' 정대래(21·수원시청)가 평영 200m에서 물살을 가르고, 한국 도약종목의 자존심인 김덕현(27·광주시청)은 세단뛰기에서 한계에 도전한다. '함평의 아들' 이두행(31·고양시청)과 '영광의 딸' 임경희(30·SH공사)는 42.195km를 달린다. 무안에서 대표팀의 꿈을 키워온 김은아(24·인천체육회)는 '제 2의 우생순 신화'를

노리며 런던으로 향했다. 남자 하키에서는 조선대 동문회가 펼쳐진다.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조선대 4인방이 출격한다. 장종현(28·김해시청)과 홍은성(29·성남시청)이 재결합했고, 강문규(24)와 광주일고와 조선대를 거친 이승일(30·성남시청)도 한국을 대표해 스틱을 든다. 남자하키 대표팀의 말형 여운곤(36·김해시청)도 담양공고 출신이다. 경기장 밖에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힘을 보태는 지도자들도 있다. 박채순 광주시청 감독이 여자 양궁대표팀의 코치로 기보배와 호흡을 맞추고, 고광구 광주은행 감독은 남자 역도 국가대표 코치로 참가한다. 김덕현을 이끌어온 김혁(광주육상경기연맹) 코치의 동행도 계속된다. 안종택(수영·대한수영연맹), 김용률(펜싱·전남도청), 윤덕하·남산호(이상 사격·전남연맹) 코치도 런던 올림픽에서 영광의 순간을 위해 힘을 더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런던올림픽 출전 광주·전남 선수·지도자

- ▲광주 양학선(한국체대) 체조 단체·도마 김희훈(한국체대) 체조 단체·안마 기보배(광주시청) 양궁 개인·단체전 김덕현(광주시청) 멀리뛰기·세단뛰기 최은숙(광주 서구청) 펜싱 에페 황우진(한국체대) 근대 5종 기성용(셀틱) 남자 축구 김중현(창원시청) 유도 소총 3자세 15m 공기소총 장종현·홍은성·강문규·이승일 (이상 조선대 졸) 남자 하키 고경수(조선대 졸) 핸드볼 ▲전남 이용대(삼성전기) 배드민턴 남자·혼합 복식 정지현(삼성생명) 레슬링 자유형 55kg 이은지(나주시청) 사이클 단체 스프린트 나야름(나주시청) 사이클 개인도로 박철성(삼성전자) 20km경보 임정현(삼성전자) 50km경보 이두행(고양시청) 마라톤 임경희(SH공사) 마라톤 김승일(수원시청) 기계체조 박경두(익산시청) 펜싱 에페 여운곤(김은아(이상 백제고 졸)) 여자 핸드볼 박선관(한국체대) 배영 100m 정대래(수원시청) 평영 200m 황희태(수원시청) 유도 100kg 김명신(화천군청) 조정 경량급 더블스컬 김병희(서울시청) 10m 공기권총 차동민(한국가스공사) 태권도 80kg급 지훈민(고양시청) 역도 62kg 김화승(조폐공사) 역도 105kg 지동원·윤석영(광양제철고 졸) 남자 축구 ▲지도자 고광구(역도·광주은행 감독), 박채순(양궁·광주시청) 김혁(육상·광주육상 경기연맹), 안종택(수영·대한수영연맹), 김용률(펜싱·전남도청), 윤덕하·남산호(이상 사격·전남연맹)

## 홍명보 감독 "멕시코 약점은 수비"

맞춤 훈련 들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 획득을 노리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상대인 멕시코의 약점으로 떠오른 수비 불안에 공략하기 위한 '맞춤 훈련'에 돌입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뉴캐슬의 뉴캐슬 대학교 코크레인 파크 훈련장에서 2시간여에 걸쳐 회복 훈련을 치렀다. 뉴캐슬에서 처음 치른 이번 훈련에서 홍 감독은 스트레칭과 미니게임 위주로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이어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홍 감독은 세네갈전 대상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다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감독은 "세네갈 평가전을 마치고 곧바로 이동해 선수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강도를 조절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멕시코의 평가전을 지켜본 홍 감독은 멕시코의 수비 불안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의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멕시코는 21일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1-2로 패했다. 지난 19일 스페인과의 평가전에서도 0-1로 물러선 멕시코는 두 차례 평가전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수비 불안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멕시코가 공격적인 면에선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비에 큰 약점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우리가 어떻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올림픽 조직위 "한국 축구 메달권 다크호스"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축구를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응원하는 정보 시스템 'Info 2012'가 메달권 다크호스로 전망했다. Info 2012가 23일 내놓은 이번 대회 남자 축구 전망에 따르면 브라질과 스페인, 우루과이가 1~3위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영국, 멕시코, 스위스,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등이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이 속한 B조가 8강 진출을 놓고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과 멕시코, 스위스가 전력상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가봉 역시 지난해 아프리카 23세 이하 대회 우승을 차지한 나라라 충분히 8강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A조는 우루과이와 영국, D조는 스페인과 일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나머지 두 나라에 앞서 있다는 평이다. C조는 브라질의 조 1위가 유력한 가운데 벨라루스, 이집트, 뉴질랜드가 조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내가 넣어볼까?" 23일(한국시각) 영국 뉴캐슬의 뉴캐슬 유니버시티 코크레인 파크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훈련에서 홍명보 감독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